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
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볼까

신 윤 식

내 속에 아담한 산새 집을 지으니
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내 속에 자그마한 꽃밭을 만드니
어제까지 잡초였던 것들이
오늘은 꽃으로 보인다.

내 속에 강을 하나 만드니
그곳에 배를 띄워
사랑을 너에게 보내고 싶다.

내 마음이 하늘의 나라를 여행하니
어느새 나는 가벼움을 느낀다.

부끄럽고 더러운 내 마음이
거룩한 나라를 산책하니
내 속은 용서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자유

기쁨

평강 그것은

마음이 무엇을 보는가에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2

발행호수 제19권 1호

기독교의 본질을 용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용서를 기독교만이 점유하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다시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성현으로 일컫는 여러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용

서를 인간이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보이신 용서가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단어는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기독교의 용서는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독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만 있는 용서라는 독특한 세계로 들어가 보자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마음에 있고, 용서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곧 교회이고, 용서는 잊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크고 훌륭하고 화려한 건물에서 몇 명이 모이든 교회는 이미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고 고집을 해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죄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이면서 서로를 통해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살고자 하게 됩니다. 이들이 모이는 그곳에 용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교회라고 일컫는 것이지만 단지 사람이 모여서 예배라는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될까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용서를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회적 분위기와 인간의 공감 안에서 도저

주일오전설교
마 18:23-35

불쌍히 여김

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악인까지도 용서를 한다면 세상은 그 용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것이고, 용서한 사람은 그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 받은 사람은 용서한 사람에게 자연히 종속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세상의 용서에는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기 위해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천국 이야기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금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녔으니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천국 갈 자와 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과연 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신다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주인에게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1달란트는 6000테나리온입니다. 1테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임을 생각해 보면 1달란트는 노동자의 16년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만년 동안 한 톨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고, 지금의 가치로 따진다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5만원으로 계산해도 3조원이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그토록 어마어마한 액수를 아무런 조건없이 탕감 받습니다. 오직 주인의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에 의해서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탕감 받은 종이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백 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의 액수입니다. 종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일만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 즉 3조원과 5백만 원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물론 3조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5백만 원도 일반 노동자에게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3조원 앞에서 5백만 원은 말 그대로 조족지

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일반 달란트와 오백 데나리온을 비교하여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죄와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실감하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전혀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형제 용서 또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용서보다 인간의 용서를 앞세우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결정된다는 의미의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취소된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머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용서를 실천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일반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면 주인이 불쌍히 여겨준 그 은혜의 가치는 일반 달란트에 해당됩니다. 16만년을 일할 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종은 일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욕에 가둠으로써 일반 달란트 가치의 은혜를 멸시해 버립니다. 이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준 주인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것이 곧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이 불쌍히 여겨주신 주인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자신을 불쌍히 여긴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 데나리온을 아까워

하지 않고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주인의 은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백 데나리온을 탕감해준 자신의 행동 또한 일반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의롭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아는 신자에게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용서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해당되는 신자입니다.

종이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야 하는 근거는 주인의 불쌍히 여겨주심에 있습니다. 일반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면 누가 봐도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백 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불쌍히 여겨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의 용서는 주인의 용서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종의 용서로 말미암아 주인의 용서가 높임받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용서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실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겁게 다가올수록 상대적으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롬 5:20,21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는 말을 합니다.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욕에 가둔 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딱하게 여깁니다. 종의 행동이 너무 심하고 부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달란트 탕감 받은 주인의 용서 안에서 종의 행동은 분명 부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 안에서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당한 것을 전혀 부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자신에게 빚진 자의 목살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을 때 좋은 무척 기뻐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으로부터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 자유, 감사를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난 순간 잃어버립니다. 빚진 자를 만난 순간 백 데나리온을 생각했을 것이고, 백 데나리온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주인의 용서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잊게 한 것입니다. 종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도 주인의 용서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할 것입니다. 주인의 용서에 감사하느냐고 물어보면 감사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인의 용서가 크다는 것을 아느냐고 하면 역시 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것은 용서하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가 진심으로 용서 받음을 아는 신자이고, 그에 게서는 용서라는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나는 용서 받았다’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아는 것으로 다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시로 용서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용서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멸시하는 종의 모습만 드러낼 뿐입니다. 사소한 실수조차도 받아주고 용납하지 못하고 같이 공격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잊은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불의함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부각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인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은혜는 용서 받은 신자가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한해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신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안다면 그 증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무엇인 가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죄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에

게서는 그 어떤 의도 나타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랑은 독특성을 띄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에는 사랑을 베풀 자가 있고 사랑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자는 가진 자에 해당되고 사랑을 받을 자는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여기에는 뭔가 차별이 존재하게 되고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주에 해당되는 비참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즉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열악해서 비참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자신이 다르지 않다는 이상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의 사랑은 어려운 사랑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죄안에서 동일하게 비참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동일한 존재로 다가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인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주인이라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독특성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자기의를 구축하면서 자기 가치 향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기 부인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부인에 의한 사랑 또한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일 뿐입니다.

신자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도 인간성으로 가

주일오우설교

문 1:4-7

**믿음의
교제**

(2강 12.12일 설교)

능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친분을 쌓는 것은 그냥 인간의 관계일 뿐이지 신자의 교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보다 낮은 밑바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자기와 동일하게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사랑의 교제는 형제를 십자가 안에서 만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높고 낮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 어떤 차별이 없이 만나는 것이 신자의 교제인데 이러한 교제는 십자가 밖에서는 불가능할 뿐입니다.

4.5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이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말을 사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을 말한다고 합니다.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빌레몬을 칭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빌레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로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자에게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맺어진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지 못합니다. 믿음과 사랑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깁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압니다. 이러한 사람이 타인을 도우면서도 동정심이 아니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존재로 돕고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에 의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언급하는 것은, 빌레몬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빌레몬에게서 사랑과 믿음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빌레몬이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빌레몬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빌레몬에게서 사랑과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처럼 빌레몬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사랑 안에서 대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것이 도망친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용서하라는 취지에서라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빌레몬이 있다면, 오네시모 역시 빌레몬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보게 함으로써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되는 형제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믿음의 교제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선한 것 즉 그리스도로 인한 하늘의 복을 알게 하고 서로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에는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는 것이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빌레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까지 말합니다(7절).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해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은, 빌레몬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따라서 가난한 자도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때로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나눈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에게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사도는 그 사랑으로 인해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가 빌레몬에 대해 말한 것을 보면 빌레몬은 사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된 후에 바른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의 믿음을 믿고 안심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서신을 써서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의 관심은 오네시모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

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다면 서신은 ‘오네시모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할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도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벗어나서 성도의 믿음의 교제라는 관계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교제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성을 잊는다면 믿음의 교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성을 잊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인간의 이기성만 고개를 드러냅니다. 이기성의 충돌만 있을 뿐이고, 자신의 의로움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만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탄식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믿음의 교제가 있다면, 그 증거는 선을 알게 하고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의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성도로 하여금 참으로 선한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며, 이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신자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개인의 인간성 안에서 교제한다면 충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고 사랑 안에서 모인다면 증거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참으로 선한 것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시각보다는 까마득한 먼 옛날의 이야기, 그것도 지금 우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특히 선지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 또한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 현실 안으로 끌어 들이지를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신자로서 행해야 할 도덕적 실천을 가르치는 내용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히 구약에 대한 관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바냐를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의 관심을 끌거나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내용들이 없습니다. 스바냐편이 아니라 선지서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 본문으로 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당시 유다를 향한 설교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설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지자의 설교는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한 내용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잘난 사람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편안한 삶을 살다가 천국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선지가 강하게 외치고 있는 진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관심거리로 다가온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힘든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의 외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와는 상관없이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외칩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수궁할 수 있습니까? 용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땅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실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는 수준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저주와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용서로 인한 기쁨과 감사는 자신을 저주와

수요일설교

습 1:1-18

진멸하리라

(1강 12.22일 설교)

진노의 자식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본질이 저주와 진노의 자식임을 아는 신자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현실성이 없는 내용으로 치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가는 자기 현실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실감하게 하는 복된 말씀으로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위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와 날’ 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날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여호와와 날이 있고 그 날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날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나에게 이롭고 이익이 되는 날이 되어지기만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재수가 좋고 행운이 따르는 매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날은 관심 밖입니다.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웃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웃을 입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웃을 입었다는 것은 이방인의 사고방식에 함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들 마음에 여호와는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제사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방인처럼 우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에 행운이 따라주기를 기대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에 집어넣고 바라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와 상관없이 진멸의 대상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생각한다면 진멸의 대상은 유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포함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존재로 여긴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운이 없어서 당하는 우연한 일로 치부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것이 신자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신자가 아닌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됩니다. 과연 내가 복의 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화의 길을 가는 것인지 살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달린 문제로 여깁니다. 복도 화도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사고방식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멸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와 날이 가깝고도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와 날의 소리보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15,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와 그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의 날입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 빠르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날이 되면 세상은 끝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 세상의 끝에 서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과 금이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능히 우리를 건지지 못함을 알 것입니다(18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희망과 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멸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1장

교 독 : 94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453장

성 경 : 마 18:23-35

말 씬 : 불쌍히 여김(11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60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 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이영민 장로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59장

기 도 : 명기룡 집사

찬 송 : 540장

성 경 :

말 씬 :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24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바냐 강해(3강)

■ 교회소식 ■

1. 2011년 첫 주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2. 오전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3. 오후예배는 이영민 장로님이 인도하십니다. 신윤식 목사는 내량교회에서 설교합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이영민 장로 오후 한옥섭 집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나는 신학교를 입학한 후 전도사가 되면서부터 교회를 담임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지금껏 부교역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거의 모든 전도사는 예외 없이 담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유년부나 학생부 또는 청년부를 맡아 일하는 교육전도사를 거친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를 거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후에 청빙이 들어오면 담임목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전도사가 거치는 코스다. 그런데 신학교 입학과 동시에 교회를 담임했으니 지금으로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당시 교단의 형편이 목사가 부족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막 시작한 목회 초년병에게 교회를 담임하도록 한 것은, 운전학원에 막 등 록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처럼 참으로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심지어 유년부 설교 경험도 없이 교회를 담임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할 용기도 없겠지만 그때는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겁 없이 교단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를 담임하게 된 것이다.

내가 처음 담임한 교회는 거제도의 칠천도라는 섬의 조그마한 마을에 있었다. 섬이었고 약 45가구의 조그만 마을이지만 당시는 시골 섬에도 학생과 어린이가 많았기 때문에 유년부와 학생부도 제법 되는 교회였다. 지금 기억으로는 장년도 약 25명쯤 되었던 것 같다. 그 교회에서 내가 당장 해야 하는 일은 장년부 설교와 유년부 학생부 설교였다.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던 나는 학생 때 다녔던 교회의 전도 사임을 찾아갔다. 당시 그분은 진해의 모 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하던 중이 었다. 나는 그분께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 설교를 해야 하는 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그분이 해결책으로 준 것은 여러 권의 설교집이었다. 나는 설교집을 받아 들고 돌아와 밤새도록 그것 을 베껴서 설교를 했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책꽂이는 설교집으 로 쌓여갔다. 그런데도 그때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고 그런 나에게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그냥 적당히 마음에 드는 설교 골라서 베껴 사용하면 된 줄로 알았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 점 차 설교집의 내용들이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고, 설교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설교가 어렵고 힘들다. 달리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봐야 하고, 보게 된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니 어렵다. 설 교를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유혹도 있기에 어렵다.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생각하고 매달린다. 그러면서 간혹 나는 내가 어떤 마 음인가를 생각해 본다.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은석교회 성도 를 향해 있는지. 나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고, 은석교회 성도를 향해 있다면 사랑일 것이다.

2011년이 적힌 달력을 보면서 설교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설교는 마음이다. 예수님을 향하고 은석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이다. 그래서 설교는 사랑이다. 올 한해 이 마음으로 설교 할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